



2020년 9월 27일(제1001호) 연중 제26주일(이민의 날)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하느님 앞에 겸손한 사람!”

오늘 교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강론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의 삶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인간은 이러한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고, 또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인간이 '사랑' 때문에 이러한 감정과 마음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인간은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은 완전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에, 하느님께로부터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는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복음 말씀에 다가가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흠숭을 드리기 위한 행동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

하는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우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고 계신지요? 혹시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인가요? 아니면 유한한 인간의 사랑인가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분께 은총을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느님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그분께 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겸손의 씨앗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의 이 하루가, 영원하신 하느님의 사랑에 기대어 폭 설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형제 여러분,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유운상(토마스 베켓) 신부
중령 103위 상인(37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에제 18,25-28

회 답 송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제 2 독 시

필리 2,1-11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 음

마태 21,28-32

영 성 제 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현계흠 플로로



성인명: 현계흠 플로로 (玄啓欽 Florus)

신분: 중인, 약재상, 순교자

활동연도: 1763-1801년

‘사수’ 혹은 ‘계온’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현계흠(玄啓欽) 플로로는 한양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많은 역관을 배출하였으나, 그는 역관의 길을 택하지 않고 약방을 운영하며 살았다. 1846년 순교자 현석문 가롤로 성인이 그의 아들이며, 1839년 순교자 현경련 베네딕타 성녀가 그의 딸이다.

현 플로로는, 일찍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면서 살다가, 1791년 신해박해로 체포된 다음에 석방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고, 이후로는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뒤, 현 플로로는 동료 신자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였다. 또 손경윤 제르바시오, 김이우 바르나바, 정인혁 타대오 등과 함께 자주 신앙 집회를 가졌고, 신입 교우들을 인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주 야고보 신부가 박해로 피신을 해야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집을 피신처로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그의 집은 ‘6회’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었다. 6회란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明道會)의 하부 조직이며 비밀 집회소였다.

현 플로로는 1797년 9월, 아우가 살고 있는 경상도 남쪽의 동래 지방에 간 적이 있었다. 이때, 그는 마침 그 지역에 나타난 영국 배를 보게 되었는데, 상경한 뒤에 황사영 알렉시오를 만나게 되자 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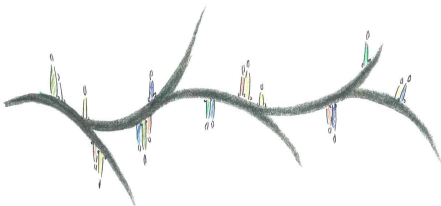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서 교우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였을 때, 현 플로로는 기회를 틈타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온 일가친척들이 시달림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4월경에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포도청에 자수하였다. 이후, 그는 포도청에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아무도 밀고하지 않았으며,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은 조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현계흠 플로로는 10월 초까지 포도청의 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다가 황사영의 문초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게 되자, 상급 재판소의 이금부로 이송되어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았으며, 1801년 12월 10일(음력 11월 5일)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이때 그의 나이 38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선물



많은 갈림길
많은 선택의 순간

스치면 인사를 건네준 사람들
나의 자리에서 나를 키운
사람들.

모두가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며,
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살아온 길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상화이야기

상진에 봉헌되시는 예수님



인드레이 만테냐, 1455년경 제작

패널 위 템페리화, 68.9 × 86.3cm / 베를린 국립 미술관, 베를린

보통 상진에 봉헌되시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은 성당을 배경으로 인물들의 전신을 표현하는 것이 전통이었으나, 만테냐는 벨리니가 도입한 반신상을 차용하여, 인물들이 우리에게 더욱 근접해서 표현되어 있다.

아기 예수님을 싸고 있는 배내옷은 후에 시체를 싣는 수의를 상징하고, 이에 따라, 성모님의 얼굴 또한 슬픔에 잠겨 있다.

인상적인 점은 성모님의 팔꿈치와 요셉의 손이 대리석 프레임에 걸쳐져 있고, 예수님을 받치고 있는 작은 쿠션이 그림의 공간에서 우리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 그림 공간과 우리의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맨 왼쪽은 만테냐의 부인, 그리고 오른쪽 끝 인물은 화가 자신의 자화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에는 성모님과 성 요셉, 그리고 시므온이 그려져 있다.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우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6주일: 해군본부 김준래 신부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도를 따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